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호【루계 제2473호】

주체107(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음력 12월 11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46년 6월 우리 나라의 첫 제약공업기지로 창설된 평양제약공장에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1982년 5월 평양제약공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현대적인 의약품포장재생산공정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 이날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도 뒤로 미루시고 공장에 찾아오시였다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평생 마음쓰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장재직장, 신약직장, 고려약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제약공장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련관된 부문들에서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기술수단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항시적으로 필요한 대중약품, 상비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약품가지수를 보다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제약공장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약품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최상의 위생조건과 환경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약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생산과 검정, 보관, 취급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질좋고 효능이 높은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개발하여 치료예방사업에 널리 리용할수 있게 하자면 세계적인 제약공업발전추세를 잘 알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공장종업원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도 잘 꾸려주어 그들의 생산열의를 부쩍 높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인민적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이며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자면 평양제약공장을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평양제약공장을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꾸리고 이곳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제약공장들을 다 현대적으로 개건하자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제약공업부문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평양제약공장현대화와 흥남제약공장현대화를 대담하게 밀고나가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직접 취해주시였다.

우리의 과학기술력량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든든하기에 평양제약공장을 능히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제약공장으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로동계급은 개건현대화투쟁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공화국창건 일흔돐전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민족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건군절

지난 1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37(1948)년 2월 8일을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적인 날로 기념할데 대한 뜻깊은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인민군의 탄생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과 부강조국건설에서 무력건설을 항상 중시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해방의 봄을 안아온 항일대전의 력사적총화로부터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강력한 군력에 의하여 지켜진다는것을 명철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해방후 지체없이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기 위해 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현대전쟁의 특성에 맞게 여러 군종, 병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군사편제와 장비, 후방공급체계 등을 몸소 짜주시였으며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훈련소 등을 내오시여 군사정치간부들을 양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각급 부대들에서 군사훈련을 정규화하며 정규적인 군사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고 부대관리를 정규화하도록 지도하여 주시였으며 주체적인 국방공업을 창설하시여 정규무력건설의 물질적토대를 마련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주석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나라가 해방되여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조선인민군이 창건될수 있었다.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역앞광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힘차게 울려퍼지는 노래소리와 함께 펄펄 휘날리는 군기, 총검을 비껴들고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정규적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정체였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주석님의 령도를 따라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쳐물리치고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였으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 강군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왔다.

위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규군의 첫 자욱을 떼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최강의 정예무력으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은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1990년대와 2000년이후 총포성없는 조미핵대결전을 비롯한 적대세력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날로 가중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불장난소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였다.

위대한 전통과 승리의 력사를 가진 조선인민군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더욱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군술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억척같이 자라나고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핵타격수단들까지 갖춘 불패의 무장대오로 위용떨치고있다.

세계언론들은 《조선이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모든 사변들을 주도하고있다. 지금 세계가 한가지 크게 놓치고있는것은 수십년간에 걸친 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조선이 하자는대로 끌려다니고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조선은 작지만 군사강국이며 정세흐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게 되여있다.》고 평하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백승을 떨치는 무적강군 조선인민군의 력사와 전통은 나라의 군력과 불패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강군이 있어 민족의 안녕과 무궁번영도 굳건히 담보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신 창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단합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데서 그 누구도 조선민족을 대신해줄수 없다. 오직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조국통일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여년세월이 흘렀다.

숭고한 민족애와 철석의 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도 마련되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장엄한 통일시대도 펼쳐지게 되였다.

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라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고 하시였다.

온 겨레는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따라 굳게 단결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스쳐지나지 않으신 매대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래상점을 찾으시였다. 여러 매대들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일용잡화매대에 있는 안경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왔는데 다시 가보자고 하시며 안경진렬대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각종 안경이 꽂혀있는 진렬대에서 검은색안경을 뽑아드신 그이께서는 안경진렬대가 안경을 뽑기 불편하게 되여있다고, 안경진렬대는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놓아야 손님들이 안경을 고르기 편리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안경을 끼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경을 파는 매대에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손님들이 안경을 낀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6월 어느날 개관을 앞둔 릉라곱등어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관람석의자에 앉으시여 곱등어재주를 보신 그이께서는 바다색갈과 같이 푸른색으로 되여있는 무대쪽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며 한 일군에게 저 무대가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의 기준

국제적기준에 부합된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나는 반대이라고, 공연무대바닥에 다른 나라들에서 한것처럼 청색을 칠하였는데 모래불과 같은 색을 칠하여 모래가 파도에 밀려나온것처럼 하면 조화가 더 잘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우리 인민의 미학적감정에 맞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여 (2)

민족적량심과 의리가 있는 애국인사라고 하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대해같은 덕망과 민족단합의 경륜속에 통일애국의 길을 걸은 사람들속에는 김규식선생도 있다.

일찌기 김규식선생은 《상해림정》 외무총장, 《중경림정》 부주석을 하였으며 해방후에는 남조선 《민주의원》의 부의장, 미국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위원회》의 우익측 주석, 《과도립법의원》 의장 등을 력임하였다. 오랜 반공의 타성에서 깨여나지 못한 그는 1948년 위대한 주석님께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발기하시였을 때 자기의 참가와 관련한 《5개항의 조건》을 내놓고 평양에 련락원을 파견하였다.

어느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그가 파견한 련락원들을 만나시고 《5개항의 조건》을 수락하시면서 그의 북행을 바란다고 하시였다. 하여 김규식선생은 평양행을 단행하게 되였다.

련석회의가 진행되던 4월 어느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김규식선생의 숙소를 찾으시였다.

그날 오전회의 도중에 주석님께서는 김규식선생이 아침에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신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숙소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보고받으시였던것이다.

김규식선생을 만나주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그의 건강상태와 가족들의 안부도 물으시고 회의에서 토의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추려서 알려주시였으며 그의 병치료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시였다. 주석님의 념려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병을 털고 일어난 그는 여러 행사들과 회담들에도 참가할수 있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련석회의참가자들을 위한 초대연을 베푸신 자리에서 김구,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의 주요정당, 사회단체지도급인사들에게 남북형제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앉으려는것은 우리모두의 절절한 념원이였으며 이 념원은 남북련석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실현되였다고 하시면서 오늘 남조선에서 온 대표여러분과 또다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고보니 더없이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김규식선생(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과 일행

이윽고 그이께서는 나이가 많은 김규식선생에게 맨먼저 잔을 부어주시고 그가 연회의 첫 연설을 하도록 권유하시였다. 김규식선생은 자기의 연설에서 북에 와보니 김일성장군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정치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모란봉극장에서 본 우리 장단에 맞추어 추는 우리 춤이 제일 좋았습니다. 〈좌우합작〉은 미국사람들의 장단에 추는 춤이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춥시다.》

이것은 바로 지난날 미국의 조작품인 《좌우합작위원회》 주석이였으며 미군정청 남조선《과도립법의원》 의장이였던 김규식선생이 위대한 주석님의 민족자주정치에 대한 탄복인 동시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한길로만 가겠다는 심장의 맹세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인 1950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서울에 있는 남조선의 이름있는 여러 애국적정계인사들이 우리 공화국정부를 지지하여 평양에 들어올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그들이 소망대로 평양에 무사히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김규식, 조소앙, 안재홍선생과 같은 이름있는 정치인들과 년로한분들은 다 고급승용차를 리용하게 하도록 조처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남조선의 정객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보살펴주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김규식선생이 병상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의 신상을 잘 돌봐주도록 해당부문에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한 일군을 만나시여 김규식선생은 민족적량심과 의리가 있는 애국인사라고 하시면서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석하고 나가서 활동한 그의 공적과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어려운 때에 병약한 70고령의 몸으로 불원천리하고 북에 들어온 소행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다시금 이르시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김규식선생은 비록 고령이지만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할분이라고, 그러므로 그가 건강한 몸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성업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치료를 잘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입원시켜 집중치료를 받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인생말년에 태양의 품에 안겨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받아안은 김규식선생은 병상에서 이런 시구절을 남기였다.

오호라!
위대하도다 현명하도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
이내 인생을 구원해주셨소
이 한몸 죽은들 천만년
잊을손가
자애깊으신 김일성장군님!

1950년 12월 어느날 그가 불치의 병으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주석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사망과 관련한 부고를 내도록 하시고 고인의 장례를 잘 치르도록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주석님을 만나뵙고 진정한 민족통일의 진로를 찾은 김규식선생은 말년을 통일애국에 담고 한생을 떳떳이 총화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 소 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새해의 려명이 밝아오는 첫아침 절세의 위인께서 펼쳐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이 시작되였다.

열화같은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의지가 차넘치고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지펴진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며 대결과 적대의 동토대우에 울려퍼진 화해와 단합의 력사적선언이다.

걷잡을수 없이 몰려드는 핵전쟁의 화염을 두고 온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던 조선반도의 그토록 첨예한 정세가 새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완화되고 날로 악화일로를 치달아온 북남관계가 단 며칠사이에 그 면모를 달리하고있는 오늘의 놀라운 현실은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그어주신 조국통일의 리정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선견지명한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단합되여 일떠서면 당할자 없다는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해 정초에 내짚은 좋은 첫걸음을 자주통일위업수행의 획기적전진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올해는 우리 인민이 삶의 요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경사롭게 맞이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나눈 동족으로서 민족적대사들을 다같이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내외에 힘있게 떨쳐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절세의 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경사로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드높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민족의 존엄과 강국의 지위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여 만방에 떨쳐지고 빛나게 된다.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며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절세위인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마음으로 적극 지지하고 실천해나가자!

하루속히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떠선 우리 겨레모두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반목질시하고 대결하는것은 더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통일되고 강성번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자!

온 삼천리강토를 자주통일의 열풍으로 들끓게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궤도를 따라 북남관계를 과감히 전진시켜나아가자!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이제 더는 남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외부에 들고다니며 누구의 도움을 청탁할 필요도 없다.

슬기로운 조선민족다운 높은 자존심과 담대한 배짱으로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자!

우리 민족이 틀어쥔 핵보검은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침략과 핵전쟁도발책동을 제압하고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과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고있으며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주체조선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돌아치는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민족의 핵, 정의의 핵보검을 악의에 차서 걸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로 매도하려는 온갖 궤변과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2.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은 북남관계개선의 결정적걸림돌이며 평화적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장애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그칠새없는 첨예한 군사적긴장속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도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지나온 력사가 실증해준 교훈이다.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핵재난을 들씌우려는 외세의 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맞서 싸울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하여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우매하고 무지한 동족상쟁행위는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정세를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온갖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담보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것이 아니며 그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민족의 안전과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모두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고 드놀지 않는 성벽이 되자!

북남대화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중대사들이 진지하게 론의되고있는 오늘 미국의 흉물스러운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버티고있을 아무런 리유도 없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고 이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동북아시아에서 허물어져가는 패권적지위를 지탱해보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땅에 위험한 화염을 피우며 재앙을 몰아오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반전평화옹호투쟁에 총궐기하자!

내외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자!

전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전쟁의 화근을 밀뿌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상이 보란듯이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3.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고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반대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남조선의 보수여적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의 반통일역적무리들이 북남관계에 끼친 파국적후과를 시급히 가시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힘있게 열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강렬한 열망이며 일치한 의지이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온 겨레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늘길, 배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적극 추동해나가자!

올해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된 지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이어나가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전민족적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해내외의 각 정당별, 계층별, 부문별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교류를 적극화하여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자!

단결은 민족의 힘이며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를 실현하고 통일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한 현실적요구이다.

온 겨레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하고 적대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자!

우리는 올해에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과 조국해방 73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것이다.

4. 민족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지금 북남사이에는 우리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접촉과 대화들이 진행되고 그 합의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고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출발을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제2의 6.15시대에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시대와 민족사의 엄숙한 명령이다.

우리 민족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춤하거나 멈춤없이 오늘의 기세대로 계속 전진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리념에 충실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이 투철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리념,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외면하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면 초래될것은 북남관계파탄과 전쟁밖에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자!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의 리익을 남에게 내맡기는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견지하자!

민족자주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

북남관계에 개선의 기류가 흐르는 지금 내외반통일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질려 간섭과 방해의 름을 노리며 그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온 겨레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부강번영할 통일된 삼천리조국의 새아침을 앞당겨오는 자주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가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승리의 기치가 진두에 펄펄 휘날리고있다.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제아무리 악랄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뜨겁게 품어안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으며 위대한 향도따라 나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을자 그 어디도 없다.

모두가 광명한 민족의 래일을 굳게 믿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주체107(2018)년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가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련합회의에는 양형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사회단체 일군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일군들을 비롯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의제《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의 운명과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불같은 사랑, 민족의 최대숙원을 기어이 풀어나가시려는 숭고한 사명감과 확고부동한 의지가 맥박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재앙을 몰아오게 될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 달라진 민족의 위상에 맞게 민족제일,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위해 민족성원모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활발히 벌려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남조선과 해외의 청년학생단체들과 긴밀히 련대하여 자주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통일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민족자주는 북남관계개선의지를 가르는 시금석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올해에 공화국의 확고한 북남관계개선의지와 주동적인 노력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된데 이어 그 실현을 위한 실무적인 접촉들이 이루어진데 대해 지금 온 겨레는 기쁨을 금치 못해하면서 지지환영하고있다.

관계개선의 이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자면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그 어떤 외세도 북남관계문제에 끼여들 자격과 명분이 없다. 외세가 북남관계문제에 끼여들면 그의 리해관계가 작용하여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데 난관이 조성되게 된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미국은 지금도 북남관계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적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최근 미국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남조선당국에 음으로양으로 압력을 가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해, 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면서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는것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게 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동족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는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며 그에 의존하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수 없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겨레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며 각 방면에 걸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극도의 파국상태에 처한것은 남조선보수《정권》들의 반통일적인 친미사대, 외세의존정책의 필연적후과이다.

력사적교훈은 북남사이의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고 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남조선당국이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문제를 놓고 외세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그의 지지를 받아 문제해결의 동력을 얻어보려 하는것은 실로 어리석은 처사이다.

최근에만 해도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에 의해 마련되고있는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와 상반되게 북남관계의 전도를 흐려놓는 온당치 못한 처사들이 나타나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을 미국상전의 《제재압박의 효과》로, 《공》으로 떠넘기며 《감사》까지 표하는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언행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장제원, 라경원을 비롯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속에서 공화국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하여 속이 뒤틀린 온갖 잡소리들이 마구 튀여나오고있다. 지어 서울역광장에서 공화국기를 불태우는 천하망동짓도 벌어졌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남조선의 형편을 두고 어떻게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갈 환경이 마련되였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서 외세의 그 어떤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할 리유는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할 힘과 지혜도 우리 민족에게 있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와 방도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의사에 따라 자체로 개척해나갈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오늘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최강의 억제력을 보유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되고있다.

이제는 제아무리 횡포한 제국주의침략자도 감히 공화국의 자주권을 건드리지 못하며 우리 민족을 얕볼수 없다.

힘이 약하면 남의 눈치를 보게 되지만 자기 힘이 강하면 배짱이 커지기마련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긍지와 확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하며 외세가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에 제멋대로 끼여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민족자주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명백한 시금석으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조 경 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이번에 발표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의 호소문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애국의 호소이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로 되는 올해에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6.15시대는 대결과 적대로 꽁꽁 얼어붙었던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열풍으로 녹이며 둘이 되면 못사는 하나, 둘을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되는 통일을 하루빨리 안아오려는 우리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게 하였다.

북과 남은 그 나날처럼 민족공동행사도 벌리고 계층별 통일회합도 성대하게 열어나가며 북남사이의 체육문화 등 각 분야의 접촉과 교류를 적극 추동하여 민족의 혈맥과 뉴대를 잇고 민족의 우수성과 공통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 화해단합의 기운은 거세차게 분출하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과 조국해방 73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김 유 성

남녘의 녀성단체들과 뜻과 힘을 합쳐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가 진행되고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는 호소문이 발표된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뜻깊은 애국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인 올해를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는 공화국의 제의와 지금 취하고있는 실무적인 조치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정어린 통일지향의 노력인가를 련합회의와 뜻깊은 호소문이 잘 말해주고있다고 본다.

호소문에도 지적되여있는 것처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단합되여 일떠서면 당할자 없다는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해 정초에 내짚은 좋은 첫걸음을 자주통일위업수행의 획기적 전진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녀성단체들과 뜻과 힘을 합쳐 뜻깊은 올해에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안아오기 위한 의로운 통일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한 옥 미

합동전쟁연습은 영원히 중지되여야 한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 발표된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지금 우리들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호소문에도 있는것처럼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자면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그 칠새없이 벌어지는 살벌한 풍경속에서는 군사적긴장이 더욱 격화될수밖에 없고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남사이의 화해의 국면이 열리고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북침전쟁광기를 품고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결시키며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는 소동을 피우고있다. 역시 우리 겨레에게 참을수 없는 분렬의 고통을 들씌우고 북남대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획책하는 깡패국가만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우리 민족의 리익을 지키고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범죄적인 북침합동전쟁연습은 일시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중지되여야 마땅하다.

우리 범민련 북측본부안의 모든 일군들은 전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전쟁의 화근을 밑뿌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우에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중앙위원 주 종 숙

공화국의 예술단파견을 위한 현지료해대표단을 환영하는 남조선인민들

올림픽경기대회를 동족대결무대로 만들려는가

지금 남조선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보수떨거지들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들을 마구 쥐쳐대며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망동짓까지 서슴없이 저질러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온 민족은 물론 전세계가 일치하게 지지환영하고있는 공화국 선수단과 대규모사절단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두고서도 《올림픽이 북체제선전장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단일팀구성은 남측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라는것이다.》라고 전혀 온당치 못하고 고약하기 그지없는 나발을 불어대고있는가 하면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북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있다.》, 《국제적인 체육축제를 남북정치쇼에 활용하고있다.》고 하는 등 온갖 악설질을 해대고있다.

더우기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이미 공화국 선수단의 출전종목과 북남단일팀구성, 공동입장 등이 합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북남단일팀구성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내는 추태를 부리여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역도를 추종하는 《대한애국당》의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나서서 《북올림픽참가반대》를 쥐쳐대며 서울한복판에서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면서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어떻게 하나 칼질해보려고 광기를 부려대고있다.

이런 천하의 역적무리들이 살판치는 땅에서 민족적대사를 성대히 치를수 있겠는가고 지금 겨레가 우려하는것도 당연하다.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민족과 통일을 위해 대범한 아량과 인내심으로 동족의 손을 뜨겁게 잡아준 공화국의 숭고한 민족애, 북남관계개선의지에 대해 그처럼 악랄하게 험담하지 못할것이며 모처럼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를 깨버리려는 란동질을 차마 하지 못할것이다.

지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악질보수세력들의 악담질과 온갖 추태는 잔치마당을 싸움마당, 북남대결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파괴행위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내외에 떨치고 민족적대사를 성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도, 나아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좋게 이어가기 위해서도 한시바삐 남조선의 악질보수패당의 대결적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 련 옥

광 명 시 에 서
《북선수단 자원봉사응원단》 조직

남조선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광명시에서 《북선수단 자원봉사응원단》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23일 광명시체육회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공화국의 선수단을 응원할 《자원봉사응원단 발대식》을 가지였다고 밝히였다.

이날 광명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 500여명의 《자원봉사응원단》이 모인 자리에서 《겨울철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모두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응원단을 발족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북선수단 자원봉사응원단에 참석해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에 감사드린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가증되는 미국의 대조선핵위협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과 애국애족적인 조치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의 훈풍이 불고있어 온 겨레의 가슴을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아울러 전세계도 이에 열렬한 지지환영의 박수갈채를 보내오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완화의 분위기와 배치되게 미국은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진배비하고 핵전쟁위협도수를 더욱 높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있게 될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 그 누구의 있을수 있는 《도발》에 대응한다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주변수역으로 기동시킨데 이어 《스테니스》호핵항공모함타격단도 곧 출동시키려 하고있다.

이미 미국은 통신망교란과 반항공망제압능력을 갖춘 전자전기 1대를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배치하였으며 핵전략폭격기들을 팜도에 전진배치하였다.

그런가하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특수작전부대를 남조선에 파견하려 하고있으며 2월경에는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단행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앞으로 발표할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에 공화국을 《잠재적인 핵위협국가》로 지정하고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내용까지 쪼아박으려 하고있다.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주범이고 핵전쟁의 원흉이며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까지 수십년간이나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핵위협소동에 미쳐날뛰여온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 걸고들며 《핵포기》를 떠드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결코 오늘에 와서 생겨난것이 아니다.

그 력사는 지난 세기를 훨씬 거슬러올라간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1957년 7월 15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핵무장화시작을 공언한데 이어 다음해인 1958년 1월 29일 남조선에 핵무기를 반입하였다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60년전인 이때부터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는 미국의 핵전초기지, 핵전쟁의 발원지로 전락되였다. 그 후 미국은 각종 핵무기와 핵전쟁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들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악랄하게 가증시켜왔다.

전대미문의 악랄하고 끈질긴 미국의 핵위협은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엄중히 침해하였으며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여왔다.

공화국은 수십년간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공갈에 맞서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였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조선반도는 날강도적인 깡패국가 미국이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피할수 없었을것이며 그속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겠는가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력사와 현실은 공화국이 미국의 날강도적인 핵위협공갈을 제압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죽어도 조선사람들이 죽을것》이라고 악담질을 해댄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조선민족의 운명을 서슴없이 핵전쟁의 제물로 바치려는 무서운 음모를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조선반도에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광기를 부리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은 민족재난의 화근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화근은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일치단결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며 온 겨레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하고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정의의 반미반전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본사기자 서 희

관계개선의 소중한 불씨를 꺼버리려는 흉악한 모의판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워싱톤에서 《제2차 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회의》라는 반공화국군사적대결모의판을 벌려놓았다.

모의판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확장억제공조체계의 강화》와 미전략자산들의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정례화, 《긴밀한 대북공조체계 지속유지》 등을 합의하였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제물로 삼으려는 상전과 주구의 범죄적흉계의 산물이며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역행하는 반공화국압살공조책동이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오래동안 폐쇄되여있던 북남련락통로들이 전격적으로 개통되고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개최된 고위급회담과 련이은 실무회담들에서 합의들이 이룩되여 온 겨레를 기쁘게 해주고있다.

최악의 핵전쟁위기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를 극적으로 전환시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있는 공화국의 통큰 결단을 두고 온 세계가 놀라움과 경탄속에 지지환영의 박수를 보내고있으며 앞으로의 사태발전을 비상한 관심과 선망의 눈으로 주시하고있다.

이러한 때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정세흐름과 배치되게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대응방안을 모의한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최근 미국이 괌도에 《B-2》, 《B-52》 핵전략폭격기들을 련이어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집결시키고있으며 미국본토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비밀특수작전준비를 은밀히 추진하고있는 때에 반공화국군사적모의판이 벌어진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는것이다.

제반사실들은 미국이 겉으로는 북남대화를 《지지》, 《환영》한다고 떠들지만 실지로는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이 땅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범죄적흉심에만 사로잡혀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 북남관계개선흐름을 차단하고 남조선당국을 《협의체》니, 《동맹》이니 하는 각종 예속의 올가미에 얽어매놓아 영원히 전쟁사환군으로 써먹으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대결망동에 계속 무분별하게 매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모의가 끝나자마자 《북핵, 미싸일위협》에 대비한 《〈한국〉 형3축체계》의 조기구축과 미전략자산의 정례적전개 및 배치확대, 《한》미군사협력강화 등에 대해 더 크게 떠들어대며 기고만장해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앞에서는 《평화》와 《관계개선》을 떠들어대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대결의 칼을 가는 흉악한 심보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불순한 군사적모의가 모처럼 살려낸 북남관계개선의 소중한 불씨를 꺼버리고 제 운명도 망치게 하는 어리석은 처사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공화국의 인내력과 아량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미싸일대피소동에 깔려있는 진의도

최근 미국과 일본이 전례없이 공화국의 《미싸일위협》에 대비한 대피놀음을 벌리며 소동을 피우고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하와이에서는 공화국의 《탄도미싸일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이라는것을 실시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13일 또다시 이 지역에서 조선의 탄도미싸일이 날아오고있으므로 즉시 대피하라는 비상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섬전체가 아비규환의 도가니에 빠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17일 미국언론들은 미국본토 미시간주에서 주민들이 운석폭발을 공화국의 미싸일공격으로 착각하고 공포에 질려 아우성을 쳤다고 떠들며 불안감을 조장시켰다.

한편 일본에서도 16일 NHK방송이 인터네트에 북조선이 미싸일을 발사한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순간경보체계가동에 따라 정부가 건물안이나 지하로 피난할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긴급속보로 올려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22일에는 도쬬한복판에서 30년만에 처음으로 공화국의 《미싸일발사》를 가정해놓고 대피훈련을 크게 벌려 복닥소동을 피워댔다.

문제는 이러한 대피놀음이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전략자산과 특수부대들을 끌어들이면서 은밀하게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빈번히 벌어지고있다는데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미싸일대피소동은 정상적인 대피훈련이나 오보가 아니다. 공화국의 핵과 로케트에 대한 공포증을 의도적으로 조장시켜 국제사회에 조선에 대한 부정적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고의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의 일환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여기에는 위험천만한 대조선침략전쟁기도를 현실로 옮기려는 불순한 목적도 깔려있다.

공화국의 《핵위협》을 선제타격과 대조선침략전쟁의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확보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침략적흉계이다. 또 그러한 상전을 등에 업고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간특한 속심이다.

당면하여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지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를 깨버리고 정세격화로 군사적도발의 명분을 쌓아보려고 조선반도에 핵항공모함 등을 끌어들이며 분주탕을 피우는가 하면 각종 전쟁위협설까지 퍼뜨리고있다. 지금 빈번히 벌리고있는 미싸일대피소동도 실제적으로 북침전쟁도발시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숙달시키려는 의도적인 전쟁준비소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카나다언론 《글로벌 리서치》가 《겉보기에는 우발적인것으로 보이지만 그 리면에 무엇인가 있다. 미싸일경보오동작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있다는 맥락에서만 온전히 리해된다. 미군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03년 이라크를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기 직전단계와 류사하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실체를 똑바로 보고 어리석은 기도를 버려야 한다.

공화국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치 않으며 단호히 대응해나가게 될것이다.

민족의 머리우에 기어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국과 일본의 침략적정체를 예리하게 투시하면서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고 짓뭉개버리려는것이 지금 공화국 군민의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산악같은 의지이다.

김 현 일

죄진자에게 차례질것은 감옥신세뿐이다

최근 남조선검찰당국이 리명박역도가 집권기간 감행한 온갖 죄악들과 함께 친인척 및 측근졸개들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수사속도를 높이고있다. 이에 당황한 리명박역도는 얼마전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자기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수궤멸을 노린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리명박역도의 파렴치한 《성명》에 남조선 각계가 분노와 울분을 표출한것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론평 등을 발표하여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리명박이 뻔뻔하기 이를데 없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검찰의 칼날을 피할수 없을것이다.》라고 하면서 역도가 오라를 지고 자기의 죄과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참여련대, 《리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쥐(리명박)를 잡자 특공대》를 비롯한 수십여개의 시민운동단체들은 리명박의 기자회견에 분노하여 역도를 구속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특히 《리명박체포단》, 《조선의렬단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은 제16차 리명박구속촉구초불집회를 열고 《9년을 기다렸다! 리명박을 구속하라!》, 《MB구속! 적폐청산!》, 《리명박은 국민혈세도적놈!》이라는 구호를 웨치며 리명박역도의 자택에 대한 포위행진을 단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룡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월 20일 룡산참사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리명박역도의 삼성동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명박이 룡산참사의 진짜주범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진것만큼 역도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리명박역도를 체포구속하여 역도가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밝혀놓을것을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의 요구는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사실상 리명박이 집권 5년기간 저지른 죄악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리명박집권시기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수십만US$를 청와대에 섬겨바친 《국정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 싸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요원들과 민간인들로 《싸이버외곽팀》을 조직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대선》까지 민주개혁세력들에게 불리한 여론공작을 벌린 싸이버사령부의 《대글》공작사건 등 이미 폭로된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리명박역도가 반박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부정부패행위들이 계속 폭로되고있다.

역도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한 의원은 리명박의 측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라고 하면서 역도의 처 김윤옥이 2011년 미국행각을 앞두고 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만US$로 손가방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구입한 의혹을 폭로하였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리명박의 조카인 다스회사 사장 리상은 (리명박의 맏형)의 아들이 2016년 3월 다스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63만US$의 뇌물을 받아 삼촌들인 리명박과 전 《국회》 부의장 리상득(리명박의 둘째형)에게 넘겨준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 증거자료인 록음파일을 공개하였다.

한편 리명박의 《영원한 비서관》으로 불리운 전 《대통령》실 제1부속비서관 김희중은 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10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US$를 리명박의 처에게 준것은 사실이다, 내가 직접 리명박의 처를 돌보는 녀성행정관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죄를 부정하는 리명박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리명박의 측근이였던 전 《국회》의원도 리명박은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 민간인들을 사찰한 박근혜를 릉가하는 가장 악독한짓을 하였다, 리명박은 깡패 《정권》, 불한당 《정권》이나 하는짓들을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역도의 범죄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남조선에서 련이어 터져나오는 역도의 죄행을 두고 언론들은 《이제 남은것은 리명박에 대한 직접수사이다. 적폐청산의 기본몸뚱이인 리명박구속은 시간문제로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묵을수록 악취만 더욱 풍기는 오물은 제때에 없애버려야함이 마땅하다.

제가 지은 죄악으로 덫에 치운 쥐신세가 된 리명박이 구차한 목숨을 연명해보겠다고 발악하고 그에 발맞추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그 무슨 《정치보복》을 떠들고있지만 그럴수록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역도년의 옆방에 갈 날만 앞당길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차례질것은 가장 비참한 파멸뿐이다

뜻깊은 새해벽두부터 동결상태에 있던 북남관계가 통일을 바라는 민족모두의 뜨거운 지향과 요구에 따라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의 궤도에 힘차게 들어섰다.

절세위인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취한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불과 3일만에 오래동안 페쇄되여있던 북남련락통로들이 전격적으로 개통되고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개최된 고위급회담과 련이은 실무회담들에서 온 겨레의 가슴가슴을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게 하는 합의들이 이룩되여 북남삼천리를 진감시키고있다.

최악의 핵전쟁위기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를 극적으로 전환시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있는 우리의 통큰 결단을 두고 온 세계가 놀라움과 경탄속에 열렬한 지지환영의 박수를 보내고있으며 앞으로의 사태발전을 비상한 관심과 선망의 눈으로 주시하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정치인이라면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높이 떨쳐지고 통일의 앞길에 밝은 서광이 비껴들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앞에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길에 앞장서는것이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패당들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와 념원,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들을 마구 줴쳐대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망동짓까지 서슴없이 저질러 만인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를 자아내고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김성태, 심재철, 함진규, 라경원, 김무성, 장제원과 《바른정당》의 류승민, 하태경, 《대한애국당》의 조원진과 같은자들이 바로 앞장에서 총대를 메고 물불을 가리지 못한채 날뛰고있다.

이자들은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와 주동적인 관계개선조치들을 《핵무력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전략》이니, 《한미동맹와해를 노린 위장평화공세》니, 《제재돌파를 위한 술수》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북핵포기를 위한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있다. 온 민족은 물론 전세계가 일치하게 지지환영하고있는 우리 선수단과 대규모사절단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두고서도 《올림픽이 북체제선전장으로 되여서는 안된다.》느니, 《공동입장시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느니, 《단일팀구성은 남측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라는것》이라느니 하는 전혀 온당치 못하고 고약하기 그지없는 나발까지 늘어놓고있다.

특히 구정물같은 남조선정치판에서도 쉽게 찾아볼수 없는 특등정치간상배, 도적왕초인데다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언행으로 강간미수범, 《홍끼호떼》, 《홍트럼프》 등의 별명을 달고다니는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놈은 그 구린내나는 아가리로 《북이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있다.》느니, 《나치선전장》이니, 《국제적인 체육축제를 남북정치쇼에 활용하고있다.》느니 하고 온갖 악설질을 다 해대고있는가 하면 라경원년은 북남단일팀구성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내는 추태를 부리여 세상을 경악케 하고있다.

지어 박근혜역도년의 졸개잔당인 《대한애국당》 두목 조원진놈을 비롯한 미친개무리들은 《북올림픽참가반대》를 줴쳐대며 서울한복판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공화국기와 통일기를 불태우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만행까지 감행하면서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어떻게 하나 칼질해보려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려대고있다.

참으로 친미사대에 골통이 썩을대로 썩고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눈깔마저 멀어버렸으며 악담질, 망동질에 이골이 나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입부리가 완전히 뒤틀려버린 무지무도한 인간쓰레기들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다시금 부언하건대 우리의 이번 조치는 그 무슨 《시간벌기》를 위한것도, 《한미동맹와해》나 《제재돌파》를 위한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겨레와 민족을 위한 중대결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 미국의 핵공갈정책과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까지도 인정하고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핵무력완성을 위한 시간벌기》를 운운하는자들이야말로 겉은 비록 멀쩡해보여도 두뇌는 완전히 마비된 백치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에는 미국의 지시가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이 아니라도 휘황한 미래에로 갈길이 많고많으며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들과 판가리결전을 치르고 단숨에 통일성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비롯하여 선택할수 있는 방안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여있다는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겨레를 위하고 평화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대범한 아량과 인내심으로 동족과 손을 잡고 겨레의 안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나선것이다.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조치를 두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대결정, 인류의 미래를 위한 책임적인 선택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일것이다.

조금이라도 민족적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가 안아온 격동적인 사변에 대해, 다름아닌 남조선이 그 혜택을 최대로 받아안고있는데 대해 감히 험담하며 모처럼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를 깨버리는 란동질을 차마 하지 못할것이다. 그립던 동포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저절로 눈물을 글썽이며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고 뜨겁게 환호하는 남조선민심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지나친 환대》니, 《상식밖의 국빈대접》이니 하고 악다구니질에 여념이 없는 홍준표와 조원진, 라경원 같은 년놈들을 두고 온 겨레가 조선사람의 피가 아니라 워싱톤의 시궁창물이 흐르고있다고 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친미굴종에 명줄을 걸고 사는 매국노들은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여길지 몰라도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남조선초불민심은 이미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식민지주종관계에 불과한 《한미동맹》에 사형선고를 내리였으며 민족자주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오늘 급격히 전변되는 북남관계의 현실은 사실상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탄국면에 처하게 하고 조선반도를 핵전쟁위험에 몰아넣었던 리명박, 박근혜보수패당의 만고죄악에 대한 엄정한 고발이고 심판이다. 하기에 그 잔당들은 지금 어둠속에 감추어져있던 저들의 더러운 정체와 매국적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는것이 무섭고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더이상 버티고있을 자리도 없게 될 비참한 운명이 두려워 피를 물고 날뛰면서 제 잔치상, 남의 잔치상 가릴것없이 재를 뿌려대고있는것이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고 하였다.

백번 죽었다나도 절대로 개심할수 없는 민족반역자들,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이름에 먹칠만 하는 정신병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강국건설을 향한 걸음이 그만큼 떠질수밖에 없다.

고조되는 민족적화해단합의 열기앞에 얼혼이 나가 온갖 추태와 악행을 다 저지르는자들은 그러한 망동이 민족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악으로 되며 저들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오늘의 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보수패당을 단호히 제압하고 그 만고죄악이 드러나고있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집단매장해버려야 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리 명

미국은 조선반도긴장완화를 가로막아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버려야 한다

사회과학원 국제정치연구실 연구사 최성호는 25일 《미국은 조선반도긴장완화를 가로막아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론평을 발표하였다.

뜻깊은 새해에 들어와 세계적인 최대열점지역으로 공인되여있는 조선반도정세가 긴장완화의 주로에 들어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에서는 비상한 관심과 지지환영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운운하던 미국은 오히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마련해나가는 오늘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판을 뒤집어보려고 사면팔방으로 기승을 부리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카나다의 방쿠버에서 벌려놓은 그 무슨 《조선반도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무상회의》라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양대가리걸어놓고 말고기 판다는 격으로 미국이 《조선반도의 안보와 안정》이라는 간판밑에 소집한 이 회의는 사실상 조선반도의 안정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위한 모의판이였다고 할수 있다. 신통히도 지난 세기 50년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가담하였던 나라들을 포함하여 20개의 나라와 지역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공세의 강화를 위협적인 언사로 선동하였으며 군사적선택론까지 또다시 줴쳐댔다.

특히 미국무장관 틸러슨은 《해상봉쇄를 비롯한 미국주도의 최대압박전략의 효률성제고》니,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 북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느니 하고 반공화국대결광기를 고취하였는가 하면 이 넥타이부대의 모임에 격도 맞지 않게 뛰여든 국방장관 마티스 역시 《북조선과의 전쟁계획이 준비되여있다.》느니, 《만일 이번 회의가 잘되지 않으면 다음은 국방장관회의를 소집할것》이라느니 하는 깡패두목같은 폭언까지 마구 늘어놓으며 참가자들을 경악케 하였다.

미국정계와 행정부의 고위인물들도 련속 나서서 《북을 수세에 몰리게 하고 미국이 주도권을 쥘 때가 되였다.》, 《북의 유화정책으로 미국이 뒤쳐지고있는 오늘의 흐름을 뒤집어야 한다.》, 《트럼프행정부는 북에 대한 군사적선택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있다.》는따위의 도발적발언들을 거리낌없이 뱉아내며 여론을 긴장시키고있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이 조선반도를 겨냥한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군사적행동으로 저들의 엄포가 빈말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로출시킴으로써 정세불안을 한층 고조시키고있는것이다.

이미 지난 1월 6일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주변의 미7함대작전수역으로 기동시킨데 이어 12일과 16일에는 스텔스핵전략폭격기 《B—2》와 《B—52》편대를 괌도에 추가배치하였으며 13일에는 스텔스전투기 《F—35B》 20여대를 탑재할수 있는 초대형상륙직승기모함 《와스프》호를 일본 사세보미해군기지에 들이민것은 세상에 공개된 사실이다. 한편 가까운 시일안에 미3함대소속 《스테니스》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서태평양수역에 증강배치하고 요꼬스까항에 있던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까지 들이밀어 조선반도수역에 지난해와 같이 3척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집결시키려 하고있다.

최근에는 우리 공화국을 초정밀감시하기 위하여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침략전쟁지역들마다에서 실전능력을 검증하였다는 전자전기와 특수작전기편대를 비밀리에 남조선에 끌어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미본토와 하와이, 오끼나와지역의 여러 훈련기지들에서 각종 침투훈련과 장비기동전개훈련을 마친 특수작전부대, 구분대들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래달초부터 집중적으로 조선반도로 출동하려 하고있으며 그 수는 무려 100개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모처럼 힘을 합쳐 조선반도평화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려는 이 시각 미국이 그와는 정반대로 정치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하며 하늘과 땅, 바다로 형형색색의 첨단핵전쟁살인장비를 포함한 숱한 침략무력을 들이밀고있는 살풍경앞에서 온 겨레는 서리찬 분노를 안고 준절히 묻고있다.

과연 누구의 초청을 받고 이렇듯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잔치집을 들부시려는 깡패들마냥 불몽둥이를 들고 쓸어들고있는가. 미국은 정녕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인류를 위한 평화의 대회가 아니라 핵전쟁의 불마당으로 만들려는것인가.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이 모든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은 그들이 자나깨나 바라는것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정세불안과 군사적긴장격화이며 기어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피는것외에 다른것은 꼬물만큼도 관심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

그토록 힘들게 개최를 성사시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껏 미국상전에게 거듭 간청해왔건만 그 대답을 오늘과 같은 심술궂은 훼방질과 정세격화로 돌려받고있는 남조선당국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품어왔는가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현 남조선당국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남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느니, 《평창올림픽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느니 하고 공언하고서도 뒤에 돌아앉아 이처럼 온갖 위험한 불장난을 벌리며 판을 깨버리려는 트럼프패당의 처사를 두고 지금 남녘민심이 못돼먹은 승냥이심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있다고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둘러싸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현실을 통하여 미국이 그토록 광고해온 《한미동맹》이란 저들의 리익과 구미에 맞게 남조선당국의 수족을 철저히 얽매여놓고 종당에는 제놈들의 목적실현을 위해 남조선을 서슴없이 희생시키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일뿐이라는것을 누구이든 리성이 있다면 똑똑히 깨닫고 있을것이다.

지금 겉으로는 대화와 평화의 기류가 흘러도 그밑에 핵전쟁의 검은 소용돌이가 시한탄처럼 도사리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다.

이와 관련하여 카나다의 한 인터네트언론은 최근 미국이 조선과의 전쟁을 은밀히 준비하고있으며 그 과정이 북을 선제타격하여 장악하려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얼마전 벌어진 탄도미싸일경보오보로 미국의 하와이주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린 사건도 다름아닌 미국이 추진하는 핵전쟁준비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여 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는 조선반도를 향하여 달리는 전쟁마차에 최후의 박차를 가하고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기도와 도발적망동에 대한 객관의 평가와 우려가 그대로 비껴있다고 할수 있다.

저들의 의사와 통제밖에서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이를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미국이 앞으로 또 어떤 엄청난 도박놀음을 벌려놓을지 누구도 예측키 어렵다.

현실은 우리 민족이 눈앞에 다가온 대사를 성과적으로 치르고 북남관계발전의 전기를 안아오자면 무엇보다 미국이 조선반도문제에 더이상 끼여들지 못하도록 각성을 높이고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배격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의 운명과 그 발전의 조종간은 주인인 우리 민족의 손에 확고히 쥐여져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와 같이 조선반도정세가 저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저들 마음대로 조종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큰 오산은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민족의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지와 평화수호를 위한 강력한 힘의 실체를 미국은 똑바로 보아야 하며 이제라도 분별없는 도발적모험을 그만두고 자신들을 위한 리성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중대한 시점에서 계속 무모한 객기와 허세를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면 분노한 조선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게 될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의 자립성, 주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 화학공업성 일군들과 나눈 대담 ❖

얼마전 우리는 화학공업성 일군들을 만나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생각한다.

부상 김승원 : 그렇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화학공업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의 창설과 발전을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국장 김전수 : 화학공업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자면 무엇보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은 메타놀과 같이 탄소수가 하나인 화합물을 출발원료로 하여 탄소수가 둘이상인 에틸렌, 프로필렌, 초산을 비롯한 기초유기화합물을 얻는 화학공업이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는 올해에 메타놀과 올레핀생산공정에 대한 하부구조 및 건축공사를 완성하고 설비장치들에 대한 제작 및 설치작업을 완성할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기 자 : 화학공업부문에서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도 적극 추진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상 김승원 :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하면 반응계안에 들어가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우리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화학공학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메타놀합성촉매와 암모니아합성촉매를 비롯한 여러가지 촉매들을 생산하는 촉매생산기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린비료공장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최단기간에 와닥닥 해제낄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기 자 :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국장 김전수 : 회망초는 주로 말라드는 짠물호수에서 화학적퇴적에 의하여 망초, 석고, 돌소금 등과 함께 생긴 유용광물로서 우리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다. 회망초는 화학공업에서 우리 식으로 탄산소다를 생산하는데서 출발원료로 되고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탄산소다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나트리움원천을 우리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회망초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에서는 기본제품으로 탄산소다와 류안비료, 석고를 생산하게 되여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탄산소다는 유리생산원료 등으로 인민경제 많은 부문에서 쓰이며 류안비료는 농업부문에, 석고는 세멘트생산에 쓰이고있다.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방법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생산방법이다.

탄산소다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고있으므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속에서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화학공업의 자립성,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가고있다.

복된 인생의 항로

세상을 놀래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민족사적 사변과 더불어 수많은 재일조선공민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50여년전에 제11차 귀국선을 타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평양미술종합대학 산업미술학부 의상미술강좌 교원인 리유미선생도 다를바 없다.

《…언제나 망설임이 많고 나약하게만 느껴지던것이 너의 옛 모습이였는데 오늘날의 리유미를 지켜보니 도저히 믿을수 없구나. 귀국의 배길이 그렇듯 엄청난 삶의 환희를 가져올줄이야!… 》

이것은 언제인가 일본에 사는 소꿉친구가 리유미선생에게 보내온 편지의 한구절이다.

정녕 그러했다.

귀국의 배길은 리유미선생에게 복된 인생의 밝은 항로를 열어주었다.

어린시절부터 미술에 천성적인 소질이 있던 리유미선생의 재능은 조국의 품에 안겨 더욱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그 나날 리유미선생이 그린 조선화 《예방주사》는 전국학생소년미술전람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였다.

희망대로 평양미술대학(당시)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배움의 꿈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운 리유미선생은 졸업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사업과 의상미술창작사업에 한생을 바쳐왔다.

일본땅에서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도 아름다운 조선옷에 매혹을 금치 못했던 리유미선생은 조선치마저고리를 더 특색있고,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것을 목표로 정하고 한생을 노력해왔다.

이 나날 그는 들국화장식무늬도안을 비롯한 우수한 조선옷도안들을 창작하여 전국옷도안전시회와 국가산업미술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조선옷》, 《조선민족옷백과》, 《아름다운 조선옷》, 《조선민족의상》 등 수많은 참고서들과 교재, 론문들을 집필하여 조선옷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민족의상분야의 권위있는 교수, 박사로 성장한 리유미선생은 민족옷을 적극 장려하는것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오늘도 민족의상연구와 창작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리유미선생(오른쪽에서 두번째)

북지도자를 바로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1)

재미동포인 로길남선생은 지난 시기 공화국을 자주 방문하여 사회 각 분야를 취재하여 있는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에 담아 글을 써냈다. 그가 집필하여 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실은 글들중에서 일부를 이번호부터 소개한다.

◇ ◇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겨레의 념원이며 숙원이다.

이남국민도, 북인민도, 해외동포도 모두가 통일을 간절히 소망해왔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부르며 《이 목숨 다 바쳐 통일을 이루자》고 념원해왔다.

6.15공동선언이 세계만방에 선포된 이후에 남북간의 민간교류는 물론 남북당국간의 교류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북방문회수가 부쩍 늘었다. 뿔달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았던 북녘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있다는 평범한 사실들도 알게 되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북을 방문하였지만 북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다.

아직도 북에 대해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때문이다.

특히 정치인, 언론인, 문예인, 경제인, 학자 등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중에도 북을 방문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을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고 툭하면 미국정치인들이 노래불러온 《개혁》, 《개방》을 말하는 경우들도 발견된다.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 모두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통일의 대상인 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것은 당연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북을 제대로 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저 북을 갔다오면 다 안다고 말할수 있는가. 그러면 북을 갔다오지 않으면 북을 모르는것인가.

북을 안다는것은 한마디로 북지도자의 위대성과 동시에 북인민의 위대성을 옳바로 리해하는것이다.

그것은 북사회가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수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북의 지도자들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일제와 미제와 맞서 싸운 제국주의와의 투쟁경험을 갖고있을뿐만아니라 이분들의 가문이 대대로 민족을 위하고 사랑하는데 앞장서왔다는것도 하나의 리유가 된다.

또 하나의 리유는 힘센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온 인류사속에서 자기의 고유성을 지키며 힘의 크고작음에 상관없이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건설하는 일과 자국의 운명을 자신들이 개척해나갈수 있는 주체사회주의건설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독창적인 주체철학리론과 이의 실천이 지도자의 위력에 의하여 운영되여왔기때문이다.

그래서 북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도자와 인민이 하나라는 사실이다.

개중에는 미국언론들과 이를 추종하는 남쪽의 언론들이 《탈북자》를 말하고 《인권문제》를 말하지만 이 사회를 리탈하는 수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다시말하면 인민들이 지도자와 하나라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을것이다.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친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이를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눈물과 환호성으로 소리칠 정도로 가슴뜨겁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인민들을 가진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북을 빼고는 찾을길이 없다.

이런 사회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없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지배세력과 이를 추종하는 민족분렬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된 사회를 향하여 지도자와 인민을 따로 갈라놓고 《독재》니, 《자유》니 하면서 북을 헐뜯어왔다.

우리는 북을 알아야 한다. 북사람들은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민족적자존심을 가장 내세우며 지도자(수령)-당-대중(인민)이 하나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일심단결된 사회라고 긍지높게 자랑한다.

우리는 이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주체리론이 무엇이며 여기에 담고있는 수령관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도 겸허한 마음으로 학습하고 리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지도자를 바로 알아야 통일이 보이기때문이다.

《민족통신》 대표
로 길 남

《문명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조선》

여러 나라 인사들이 강조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 인민의 리상과 문명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이제리아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사회주의문명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제강국건설에 큰 힘을 기울이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명강국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의도이다.

조선은 이미 문명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나라이다. 교육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으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발전하였다.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교육이 무료라는것이다.

도처에 꾸려진 교육기지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왔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 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선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지금 조선에서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조선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과 함께 무상치료제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있으며 평양을 비롯하여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계속 건설되고 높은 수준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련이어 일떠서 인민들이 가장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한편 공화국의 대동강반에 훌륭히 일떠선 릉라곱등어관을 참관한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은 자기의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피력하였다.

《릉라곱등어관을 참관하고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이곳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국가의 혜택속에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조선인민들이 부럽다.》

본사기자

대동강반의 서리꽃

각지의 휴양소들에서

요즘 묘향산휴양소, 온포휴양소를 비롯한 각지 휴양소들에서 근로자들의 겨울철휴양이 한창이다.

경치 아름다운 개성시 송악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휴양소에서는 겨울철 휴양을 하는 농업근로자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은정속에 온갖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이곳 휴양소에서는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개성시에서 온 농업근로자들이 즐거운 겨울철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휴양생들은 흰눈덮인 송악산에로의 등산과 배구,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난해의 농사경험을 나누면서 올해 농업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르고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있다.

이곳 휴양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휴양생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이 휴양생활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다.

산뜻하게 꾸려진 휴양소식당의 식탁들에는 날마다 색다른 음식들이 듬뿍 올라 휴양생들을 기쁘게 해주고있으며 군중문화오락실은 장기와 윷놀이로 흥성이고있다.

경성군에 위치한 온포휴양소에서도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으며 즐거운 휴양생활을 하고있다.

이곳 휴양소는 온천으로 유명하다.

온천물목욕, 등산, 도서열람 등 휴양생들의 하루 일과는 말그대로 희열과 랑만으로 가득차있다.

휴양생들은 배구, 롱구, 바드민톤경기, 민속오락들인 장기와 윷놀이 경기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저녁마다 유쾌한 오락회시간이 되면 휴양소는 더욱 떠들썩해진다.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춤도 추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휴양생들의 얼굴마다에는 근로하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고마운 제도에서 사는 긍지가 비껴흐르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온 로동자 리종남은 온포휴양소가 제집처럼 정이 푹 든다, 훌륭하게 꾸려진 이곳에서 휴양생활을 하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새 힘이 용솟음친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등에서 온 휴양생들도 같은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운동과 기억력

운동은 피순환을 촉진시켜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물질을 받을수 있게 하며 피로감을 빨리 없앨수 있게 한다.

운동은 뇌의 에네르기공급을 촉진시키고 아데노신3린산의 합성을 늘이며 뇌의 영양상태를 개선한다.

자료에 의하면 500명의 학생들에게 각이한 상태에서 교과서내용을 외우게 하였는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외운 학생들의 평균성적은 3점, 서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외운 학생들의 성적은 5.6점, 달리기를 한 후 3분 지나서 외운 학생들의 성적은 9.1점이였다고 한다.

이것은 적당한 운동이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는것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억력은 뇌에서의 단백질합성과 련관되여있는데 그 합성자체가 리보핵산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운동은 리보핵산의 함유량을 늘이고 그 합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였다.

기억력을 높이면 뇌의 로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 왕성한 기력을 유지할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썰매타기

썰매타기는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즐기는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어린이들이 얼음판이나 눈우에서 썰매를 타는 운동놀이인 썰매타기는 조선봉건왕조 초기에 이미 널리 보급되여있었다.

썰매라는 말은 원래 눈우를 질풍같이 달리는 말과 같다고 하여 《설마》라고 부르던것이 점차 발음이 변하여 근대시기부터 썰매로 부르게 되였다. 함경도와 평안도 북부지방에서는 얼음우에서 타는 《수레》라는 뜻에서 썰매를 《빙거》, 《빙차》라고 불렀다. 이것은 썰매타기가 오래전에 발생하여 전해오는 놀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썰매는 대체로 길이 40cm, 너비 35cm, 높이 10cm정도였다. 썰매밑에는 얼음에 잘 미끄러지는 참대날이나 쇠줄 또는 금속판날을 댄 두개의 발이 붙어있다. 이 썰매를 타기 위해서는 두개의 썰매채(또는 썰매송곳) 혹은 썰매꼬치가 있어야 했다. 썰매채는 직경 3cm정도의 굵기에 자기 앉은키만한 길이의 나무끌에 송곳이나 쇠못을 박아 만들었다.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면서 많이 진행한 겨루기는 정한 지점을 돌아오기, 계주형식으로 달리기 등이였다.

썰매타기는 어린이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운동신경을 발달시켜주며 어릴때부터 얼음이나 눈우에서 물체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고 탐구력을 키워준다. 오늘 썰매타기는 그 형태와 놀이방법이 더 다양해졌으며 어린이들속에서 널리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이놈》과 《선생》

옛날에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주간을 보고있었다. 당시에는 백정이라면 천민중에서도 최하층계급이였다.

어느날 량반 두사람이 고기를 사러왔다. 첫번째 량반이 말했다.

《야, 이놈아! 고기 한근 다오.》

《예, 그러지요.》

백정은 두말없이 고기 한근을 베여주었다.

두번째 량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나이든 사람에게 함부로 하대하는것이 거북했다. 그래서 점잖게 부탁했다.

《이보시게 선생, 여기 고기 한근 주시게나.》

《예, 그러지요. 고맙습니다.》

백정은 기분좋게 대답하면서 고기를 듬뿍 잘라주었다. 첫번째 고기를 산 량반이 옆에서 보니 같은 한근인데도 자기한테 준 고기보다 갑절은 더 많아보였다.

그 량반은 몹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따졌다.

《야, 이놈아! 같은 한근인데 왜 이 사람것은 이렇게 많고 내것은 이렇게 적으냐?》

《네, 그거야 손님고기는 〈놈〉이 자른것이고 이 어른고기는 〈선생〉이 자른것이니까요.》

단편소설

여울물소리 (6)

글 현명수, 그림 박봉혁

《유진씨, 당신이야 이북의 돈을 받으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요. 지금쯤 이북에서는 당신을 인테리변절자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운명의 심판대에 올려놓으려고 하고있을거요. 그러니 당신을 초청해온 우리로서 당신을 보호하는거야 당연한게 아니요. 당국에서도 다 생각이 있어 조처한 일일테니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오.》

그후에도 그 그림자들은 유진의 곁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유진은 불안감에 빠져들었다. 카페에 가서도 누군가가 지켜보는 속에서 음식을 먹는듯싶어 아예 식당출입을 끊게 되였다. 극장에서 곁의 사람이 별찮은 물음을 건네여도 와뜰 놀라게 되였다. 분명 뒤켠 어디엔가 앉아있을 자기의 그림자가 어떤 접선처럼 생각하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에서였다. 밤에는 괴이한 꿈들이 펼쳐져 밤대로 그를 괴롭히였다. 결국 유진은 심장병에 걸려 3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까지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유진은 거리를 거닐다가 고향사람을 만났다.

타향에서는 제 고향 까마귀를 보아도 반갑다는데 한고향사람임에야! 그러나 그 고향사람의 처지는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지리산으로 들어가 빨찌산이 된 그는 정전후 체포되였다가 금방 출소한 상태였다. 무의무탁한 그의 처지가 하도 딱하여 세방과 일자리를 얻으라고 얼마간 용돈을 쥐여준것이 죄가 되여 유진은 경찰서의 신세를 지게 되였다. 《빨갱이》에게 정치자금을 대주었다는것이였다. 유진을 취조한 검사는 그가 동료들에게 들려준 과거사까지 꺼들면서 《불온사상자》라는 감투를 씌웠다. 즉 그가 이북에서 준 학비로 공부했다고 말한것이 이북제도에 대한 선전으로 된다는것이였다. 유진이 출소하는 날 검사는 뒤쫓아나와 바래우며 말하였다.

《유진씨가 유능한 연구사이니 출소하게 되는 거요. 회사측이 당신을 보증한단 말이요. 그러니 사장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하오. 과거사는 몽땅 잊으시오. 이북에 고향이 있다는 사실, 북에서 학비를 보태주었다는 사실, 이 모든것을 깡그리 잊으시오. 새 인간 김유진이 되란 말이요.》

유진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자신이 가련하기도 하였다. 눈이 있어도 보지 말아야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남땅으로 온것이 후회막급하였다.

그리하여 장인의 병사후 기회를 엿보던 유진은 밀선을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오게 된것이였다.

그런 그였기에 대사관 문화참사가 박석진의 아들임을 알게 되였을 때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하면서도 그런 의젓한 아들을 키운 석진의 인생에 대한 부러움도 그들먹이 차올랐었다. 유진은 인생말년기에 배신자로 고향으로 갈 자격조차 잃어버렸다면 석진은 고향의 시내가나 흰 파도 설레이는 동해바다가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있는지 어찌 알겠는가. 바로 지금 이 시각도…

(음—)

유진은 신음 비슷한 소리를 짤막하게 내였다.

《인철선생이 더 다른 말은 없었소?》

숙향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별안간 나를 만나자고 하다니? 조직배양기술에 대한 호기심이라… 하긴 그럴수도 있지. … 여하튼 그와 만나는것은 최윤걸선생이 돌아온 다음으로 미루자. 윤걸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유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콤퓨터로 암스테르담의 세계새기술정보봉사홈페지와 접속하였다.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인간생활의 일체 다반사를 잊고싶었던 일념에서부터 속세와의 련계를 전혀 갖지 않았던것이였다. 지금 그가 불쑥 알고싶어진것은 그간에 있은 세계 각국에서의 조직배양기술의 발전실태와 연구 및 생산자료였다. 홈페지를 열어나가던 유진은 가슴 철렁한 정보를 받게 되였다. 그것은 이미 3년전에 북조선에서 《사과나무접목과 조직배양》이라는 소론문이 출판되였기때문이였다.

그 필자의 이름은 박석진이였다.

유진은 노여움에 북받쳤다. 모든것이 귀찮았다. 입만 열면 꼭 새기술정보쎈터에 대한 욕설이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3년전에 출판되였다는 론문을 이제야 게재하는게 무슨 세계새기술정보봉사쎈터인가? 《낡은자료수집보관쎈터》라고 불러야겠다!

그러면서도 유진의 가슴속에는 미련이 남아있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식물조직배양이 아니라 기둥형사과나무의 초밀식재배를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직배양기술이였다. 그러니…

유진은 기대하였다. 그가 인생의 불꽃이 사그라져가는 황혼기에 마지막 힘을 깡그리 모아 진행한 그 연구는 어떤 영예도 부귀도 바라지 않은것이였다. 그것은 스스로 귀향길을 포기하고 살아온 한생의 속죄였고 마지막 모대김이였다.

노여움에 불타던 유진의 얼굴에 한동안 애수가 비껴흘렀다.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